

비핵화 로드맵·남북경협 차질...문 대통령 구원등판 주목

중대 고비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하노이 선언·합의문 도출 실패 북미대화 당분간 담보 불가피
북미정상 '만남' 여지 남겨...조기 한미정상회담 등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북미 정상이 오전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담을 것으로 예상됐던 '하노이 선언'의 채택도 불발됐다.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담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성과 없이 끝난 이번 회담을 두고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를 고대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와 합의하면 이를 발판으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으로 몇 주내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지난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에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방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즉위 시기에 맞춰 5월에 일본을 방문한다면 한국을 함께 들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한미 정상이 만나는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정치권 "안타깝다... 조속한 회담 재개 기대"

여야 정치권은 지난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한 것에 실망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서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전 없었던 회담이 안타깝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속한 회담 재개를 기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북미 양국이 하노이 선언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런 시일 내에 추후 회담을 통해 타결에 이르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도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 능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북미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추후 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있기를 소망했으나 아무런 합의나 진전 없이 회담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청 후 기자들에게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을 못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레도

다행인 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 점"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미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실한 합의가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세계의 이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가 집중됐던 회담이었던 만큼 실망을 감추기는 어렵다"며 "다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대화를 기약했기에 희망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은의 선택은?...경색 국면 거쳐 협상 지속할 듯

강경입장 선회 가능성 낮아
국제사회 여론전 총력 전방

조차도 반입이 불가능한 현재의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남북 및 북중 경협을 추진하려면 상응 조치로써 제재 해제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흘이나 수천 km를 달려 베트남에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국 아무런 결과물을 손에 쥐지 못한 채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베트남 도착 전부터 이례적으로 '사전 보도'하며 '평화 변영의 대장정'으로 부각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서둘러 제재 해제를 반드시 받아내 당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이뤄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 맞닥뜨린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해제는 '선물'을 절대로 받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결렬 배경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더 나갈 수 없어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일정한 경제 국면을 거쳐 협상을 지속할지, 아니면 다시 2018년 이전의 군사적 도발 같은 강경정책으로 회귀할지 선택이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소한 장비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이 올해도 대북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번 회담에선 다음 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위기감을 키우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협상의 판을 깨며 강경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발사 시범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 대미 담판을 접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강경노선으로 회귀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내외에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 중심의 국정 목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툭다운 외교 리스크...실무진 시간과의 싸움서 이기지 못해

합의문 없이 결렬 매우 이례적
실패없는 정상회담 속설 뒤집혀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은 북미 핵 협상이 '툭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툭다운 방식은 실무진에서 협상해서 올린 것을 정상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서명하는 보통의 '바텀업(bottom up)' 협상과 정반대로, 정상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한 뒤 실무진에 후속 협상을 넘기는 방식이다.

외교가에는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속설이 있다. 양국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정상회담은 통상 충분한 실무협상 과정을 거쳐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파국'을 맞는 상황은 극히 드물고, 설사 치열한 논쟁 끝에 정점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성공'으로 포장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역사적 핵 담판'으로 기대를 모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7-28일(이하 현지시간) 베트남

이런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일자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미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뒤인 8일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회담 개최지가 하노이라고 밝혔다.

정상끼리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비전-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이뤄졌지만 결국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교 만한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식도 취소됐다. 충분한 실무협상을 통해 이점을 조율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통한 타당한 방식으로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지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